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비교 연구: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신재혁**

I. 서론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들의 파편성(fragment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체제의 파편성이란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업적(performance)에 큰 영향을 미친다(Clark et al. 2012). 본 논문에서는 선거제도의 효과에 주목하여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 간, 그리고 개별 사례 간의 정당체제 파편성의 편차를 설명한다.

동남아시아 11개 국가들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로는 미얀마(버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들 수 있다. 이 때 민주주의란 (1) 행정부 수반이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되거나 선출된 의회로부터 선임되고, (2) 복수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입법부가 선출되고, (3) 야당이 허용되며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realistic

* 이 논문은 제주평화연구원(JPI) 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정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를 발전시킨 것임. 정책포럼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JPI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shinj@korea.ac.kr

chances)이 있는 정치체제로 정의한다(Cheibub et al. 2010).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미얀마는 1960~62년까지, 필리핀은 1946~65년과 1987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1999년 이후, 태국은 1975~76년과 1979~91년, 1992~2006년, 2011~14년까지 민주주의로 판단할 수 있다.¹⁾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이러한 민주주의 시기에 존재했던 또는 존재하는 정당체제들이다.

이들 정당체제의 공통된 특징은 대체로 많은 정당들이 국회나 정부를 구성하여 파편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2014년 총선의 경우 총 10개 정당이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People's Representative Council) 의석을 획득하였고, 태국의 2011년 총선에서는 총 11개 정당이 하원(*Saphaphuthan Ratsadon*: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다당제(multiparty system)를 지니고 있다는 유사성보다 이 정당체제들의 국가 간, 개별 사례 간의 상이성이 더욱 주목할 만하다. 먼저 집합 수준(aggregate level)에서 국가 간 정당체제의 파편성을 비교하면 미얀마로부터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파편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개별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파편성을 비교하면 필리핀은 마르코스 독재 이전 양당제를 유지하다가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다당제로 전환하였다(Choi 2001; Hicken 2009). 반대로 태국의 정당체제는 과거 파편성이 높은 다당제였으나 탁신 등장 이후 파편성이 급감하였다. 이에 비해 인도네시아 정당체제의 파편성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정당체제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이성의 원인을 선거제도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논

1) 이는 체이뷰 등(Cheibub et al. 2010)이 만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데이터 상의 분류와 일치한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1962년 3월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태국의 민주주의는 2014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지된 상태이다.

문의 주요 발견들(findings)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electoral formula)과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가 국가 간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에 비하여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하에서, 그리고 소선거구제(single-member district system)에 비하여 중대선거구제(multi-member district system) 하에서 파편성은 증가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와 대통령의 재선 가능 여부가 개별 사례 간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 때 파편성은 감소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정치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남아시아 정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일 사례 연구에 치중해 왔다.²⁾ 예를 들어, 이 지역 선거와 정당에 관한 논문들은 주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선거, 혹은 하나의 정당만을 분석하고 있다(Hicken 2008). 따라서 특정 사례에서 관찰된 현상이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 결과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개별 국가나 사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해 왔으나, 특정 국가나 사례를 넘어 일반화 가능한 이론을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여러 시기를 비교 연구하는 본 논문은 각 국의 경험이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정치체제에 관한 일반 이론들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비교정치제도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몇 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예로는 Hicken(2009)과 Choi(2012)를 들 수 있다.

이하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정당체제 파편성의 중요성과 측정 방법을 논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집합 수준에서 관찰되는 국가 간의 정당체제 파편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IV장에서는 개별 수준에서 정당체제 파편성의 편차를 분석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장과 발견들이 동남아시아 정치 연구와 비교정치제도 연구에 대하여 갖는 의의를 논한다.

II. 정당체제의 파편성

본 연구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정당체제 파편성의 편차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결과들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³⁾ 먼저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정당은 시민과 통치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결사체이다(Schattschneider 1942). 정당들은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배출하고, 선출된 후보들은 국회의원 등의 공직을 맡게 된다. 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을 따라 집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한다(Aldrich 1995). 또한 같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대하여 집단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Fiorina 1980).

정당체제란 민주주의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들의 집합 개념이다. 이것은 정당들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의 체제를

3)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가 수준(national level)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한정한다. 지역구 수준(district level)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관한 연구는 최정욱(Choi 2005, 2010)과 톰사(Tomsa 2014) 등을, 지역구 수준의 파편성과 국가 수준의 파편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히켄(Hicken 2009)과 카수야(Kasuya 2009)를 참조할 것.

뜻하는데, 한 나라의 정당체제의 파편성, 즉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느냐는 정부의 책임성과 응답성(responsiveness),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성과 응답성, 대표성 등은 경제 개혁과 종족 갈등과 같은 그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 결과들을 달라지게 만든다(Clark et al. 2012).

첫째,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책임성은 낮아진다.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Clark et al. 2012). 정치인들이 자신의 업적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정부의 책임성은 높아진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을 통해 업적이 훌륭한 정치인은 다시 선출하고, 업적이 나쁜 정치인은 낙선시킴으로써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Powell 2000). 그런데 파편성이 높은 정당체제, 즉 다수의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획득하는 경우, 단일 정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는 연립 정부(coalition government)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Shin 2013). 다양한 정당들로 구성된 이러한 연립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업적이 나쁠 때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정당들이 중간에 연정에서 이탈하거나 새로운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서 책임 소재는 더욱 불분명해진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를 통하여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Powell 2000).

둘째,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응답성도 낮아진다(Clark et al. 2012). 다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 정부는 단독 정부(single-party government)에 비하여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정부의 파편성이 높은 국가

에서는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극복을 위한 개혁 조치를 실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Tsebelis 2002). 이에 비해 파편성이 낮은 정당체제에서는 단독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응답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 또는 효율성(efficiency)도 높아질 것이다.

반면,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증가할수록 여러 정당들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대표성이 높아진다(Clark et al. 2012).⁴⁾ 예를 들어, 연립 정부 하에서는 소수정당의 이익이 보다 잘 대변될 수 있으므로 파편성이 높은 정당체제는 종족 갈등(ethnic conflict)과 같은 사회 내의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Lijphart 1990a). 이에 반해 파편성이 낮은 정당체제의 경우 한 두 개의 거대 정당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소수파의 불만이 높아져서 종족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정당체제의 파편성은 정부의 책임성과 응답성, 대표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정부의 경제 개혁이나 종족 갈등 등 국가 내 중요한 정치적 결과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당체제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파편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정당체제는 주로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수와 크기, 즉 파편성을 고려하여 분류된다(Clark et al. 2012). 권위주의에서는 정당이 허용되지 않거나 하나의 정당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는 일당제(single-party system)가 존재하지만, 민주주의 정당체제는 대개 두 개의 정당들이 경쟁하는 양당제(two-party system)와 세 개

4) 클락 등(Clark et al. 2012)은 대표성을 합치성(congruence) 혹은 정적 대표성(static representation)이라 부른다. 특정 시기에 국가 내의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익을 정부가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는가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위의 응답성은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정부가 얼마나 잘 대변하는가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응답성을 동적 대표성(dynamic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이상의 정당들이 경쟁하는 다당제(multiparty system)로 분류된다.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양당제는 개혁 조치를 쉽게 단행할 수 있는 등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갈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다당제는 소수파의 불만은 누그러뜨릴 수 있으나 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당체제를 이처럼 양당제나 다당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체제의 파편성을 측정해야 한다. 그 측정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거나 국회 의석을 획득한 정당들의 숫자, 즉 절대정당수(absolute number of parties)를 세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질적 의미의 파편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A 국가의 의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95 퍼센트와 5 퍼센트 의석을 차지하고, B 국가 의회에서 두 정당이 각각 55 퍼센트와 45 퍼센트 의석을 차지한 경우, 절대정당수는 양자 모두 2개로 같다. 그러나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양자를 모두 양당제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 A의 경우는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일당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대정당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측정 방식이 유효정당수(ENP: effective number of parties)이다(Laakso and Taagepera 1979).

$$N = \frac{1}{\sum_{i=1}^n p_i^2}$$

(p 는 각 정당의 의석점유율 혹은 득표율)

앞서 제시한 예를 위의 공식에 대입하여 의석점유율에 따른 유효정당수(ENP in terms of seat share)를 산출하면 A는 1.10, B는 1.98이다. 따라서 절대정당수는 양자 모두 2개로 같으나, 유효정당수를 통

해 A는 사실상 일당체제, B는 양당체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대정당수에 비하여 유효정당수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과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하였듯이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주요 정치적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체제의 과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유효정당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의석점유율에 따른 유효정당수를 이용하여 정당체제의 과편성을 산출하고, 국가와 시기에 따라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과편성이 왜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Ⅲ. 집합 수준의 과편성

민주주의 시기 미얀마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수의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과편성이 상당히 높은 다당제를 지니고 있다. <표 1>은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 정당체제의 과편성을 절대정당수와 유효정당수의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먼저 절대정당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미얀마의 11.0으로부터 필리핀의 19.6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과편성을 나타내는 유효정당수를 보면 미얀마의 경우 1.9로 양당제에 가깝고, 인도네시아는 6.5로 가장 과편화된 다당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 미얀마의 1960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원내에 진출한 11개 정당들 가운데 반파시즘인민자유연맹(AFPFL: Anti-Facist People's Freedom League)으로부터 갈라진 두 분파가 전체 의석의 87.9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우 누(U Nu)와 떠킨 땡(Thakin Tin)이 이끄는 청렴

파(Clean AFPFL)가 전체 의석의 57.2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바 스웨(Ba Swe)와 쯔 네잉(Kyaw Nyein)이 이끄는 안정파(Stable AFPFL)가 30.7 퍼센트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9개 정당들은 전체 의석의 11.9 퍼센트밖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당제와 유사하게 한 정당의 두 분파가 경쟁하는 체제였던 것이다.

<표 1>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파편성 (집합 수준)

국가	절대정당수	유효정당수	사례수
미얀마	11.0	1.9	1
필리핀	19.6 (20.4)	3.6 (1.7)	14
태국	11.1 (3.6)	4.9 (1.9)	14
인도네시아	14.3 (5.7)	6.5 (1.5)	4

-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미얀마의 경우 사례수가 1이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값과의 차이가 상당히 큰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 2) 유효정당수는 민주주의 시기 총선 결과 원내에 진출한 각 정당의 하원 의석점유율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거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 3) 미얀마는 1960년 총선, 태국은 1975~2011년 사이에 실시된 총선, 필리핀은 1946~65년까지와 1987년 이후에 실시된 총선, 인도네시아는 1999년 이후 실시된 총선 결과만을 포함하였다.

이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1999년 총선 으로부터 2014년 총선에 이르는 네 번의 총선에서 5 퍼센트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이 최소 다섯 개에서(1999년) 최대 아홉 개나(2014년) 존재하였다. 이들 가운데 모든 선거에서 15 퍼센트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주요 정당(major party)들은 독재자 수하르토(Suharto)의 정당이었던 골카(Golkar: Partai Golongan Karya)와 메가와띠(Megawati Sukarno Putri)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Partai Demokrasi Indonesia-Perjuangan) 둘 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주요 정당들이 차지한 의석비율은 총 35.7 퍼센트에서(2009년, 2014년) 최대 59.1 퍼센트에(1999년) 그쳤다.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민주당(Partai Demokrat)이 원내 제1당이 되었던 2009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26.4 퍼센트의 의석만을 획득했다. 인도네시아의 정당체제는 과편성이 상당히 높은 다당제인 것이다.

국가 간의 이러한 집합 수준(aggregate level)에서의 과편성의 차이는 선거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작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당체제의 과편성이 낮아진다(Duverger 1964). 이에 비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작은 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편성은 높아진다. 한편 다수 득표자(들)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득표가 의석으로 비례적으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작은 정당들도 비교적 쉽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서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높아진다(Lijphart 1990b).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예상이 가능하다.

-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가장 낮을 것이다.
- (2)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증가할 것이다.
- (3)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체제의 과편성은 가장 높을 것이다.⁵⁾

5)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중대선거구제이다.

<표 2>는 이러한 예상이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의 사례들에도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얀마와 필리핀은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single-member district plurality voting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태국은 선거구 별로 득표순으로 다수의 당선자가 배출되는 블록투표제(block vote system)를 실시하고, 인도네시아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와 필리핀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가장 낮고, 태국 정당체제의 파편성은 보다 높으며, 인도네시아 정당체제의 파편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유효정당수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예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얀마와 필리핀의 유효정당수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태국은 이보다 높으며, 인도네시아는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국가별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국가	선거구 크기	의석전환 방식	예상 파편성	유효정당수	사례수
미얀마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낮음	1.9	1
필리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낮음	3.6 (1.7)	14
태국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중간	4.9 (1.9)	14
인도네시아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높음	6.5 (1.5)	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유효정당수 계산과 사례 선정 방법은 <표 1>과 동일하다.

끝으로, 이와 같은 유효정당수 평균값의 국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들을 두 개씩 짝지어 t 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미얀마는 사례수가 1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유효정당수의 평균값을 미얀마의 유효정당수(1.9)로 설정하고 단일 표본(one sample)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국가들 간의 유효정당수 평균값은 적어도 95% 신뢰수준($p <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개별 수준의 파편성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체제의 파편성을 집합 수준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 수준의 자료로는 국가 내에서의 편차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 내 파편성의 편차는 개별 수준(individual level)의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3>은 이들 국가에서 각 선거 이후 하원에 진입한 정당들의 절대정당수와 유효정당수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있어서 국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 이전의 유효정당수는 1.5와 2.3 사이로 평균 1.96이었으나, 민주화 이후 유효정당수는 2.9와 6.6 사이, 평균 4.52로 증가하였다. 둘째, 태국에서는 1975년 최초의 민주 선거 이후 1996년 총선까지 유효정당수가 4.1에서 7.8 사이로 평균 5.84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탁신(Thaksin Shinawatra)의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Thais Love Thais*) 등장 이후 유효정당수는 1.7에서 2.8 사이, 평균 2.4로 급감하였다. 이에 반하여 인도네시아는 네 번의 민주선거에서 4.7에서 8.2 사이의 상당히 높은 유효정당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1. 이론

이러한 국가 간, 시기 간 파편성의 편차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리핀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 이

<표 3>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파편성 (개별 수준)

국가	선거연도	절대정당수	유효정당수	유효정당수 평균
미얀마	1960	11	1.9	1.90
	1946	5	2.3	
필리핀	1949	3	2.1	1.96 (0.34)
	1953	3	2.2	
	1959	3	1.5	
	1961	2	1.7	
	1987	10	6.6	
	1992	6	3.1	
	1995	11	2.9	4.52 (1.40)
	1998	21	2.9	
	2001	21	4.1	
	2004	28	4.4	
	2007	46	6.2	
	2010	58	5.3	
	2013	58	5.2	
	태국	1975	12	
1976		19	4.1	
1979		9	5.2	
1983		10	4.8	
1986		15	6.1	
1988		15	7.8	
1992(3월)		11	6.0	
1992(9월)		11	6.1	
1995		11	6.4	
1996		11	4.3	
2001		9	2.5	2.40 (0.48)
2005		4	1.7	
2007		7	2.8	
2011	11	2.6		
인도네시아	1999	21	4.7	6.53 (1.49)
	2004	17	7.1	
	2009	9	6.1	
	2014	10	8.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유효정당수 계산 방법은 <표 1>과 동일하다.

전에는 민족당(Nationalist Party: *Partido Nacionalista*)과 자유당(Liberal Party: *Partido Liberal ng Pilipinas*) 양당체제였으나 1986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로 전환하였다. 민주화 이전 양당제를 유지한 이유는 첫째,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실시로 소정당의 의석 획득이 어려웠고(Teehankee 2002), 둘째,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어 선거에서 강력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는 야권이 단합하였기 때문이다(Choi 2001; Hicken 2009). 이에 반하여 민주화 직후인 1987년 선거부터 정당수가 급증한 이유는 첫째,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선이 금지됨으로써 강력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 야권이 분열되었고(Choi 2001; Hicken 2009), 둘째, 1998년부터 소선거구제와 함께 실시된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많은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다(Teehankee 2002).

다음으로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높았던 이유는 첫째, 중선거구제인 블록투표제를 실시하여 소정당들의 의석 획득이 용이했고(Hicken 2009), 둘째, 군부의 잦은 정치 개입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강력한 집권당을 건설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득표를 거두는 거대정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Hicken 2006). 이에 반하여 탁신 등장 이후 태국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한 이유는 첫째, 막대한 재력을 바탕으로 선심성 혜택을 대규모로 살포하여 특히 가난한 농촌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는 강력한 정당(태국애국당)이 출현하였고(Phatharathananunth 2008),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헌법을 개정할 때, 선거제도를 소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소선거구제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Hicken 2006).⁶⁾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이유는 첫째, 민주

6) 블록투표제를 폐지하고, 80 퍼센트의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20 퍼센트의 의원들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closed-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득표율이 의석율로 비례적으로 전환되어 소정당이 의석을 비교적 쉽게 획득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고 (Ellis 2000), 둘째,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몇 달 후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민주화 이후 필리핀의 야당들처럼 인도네시아 정당들도 분열될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필리핀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보다 몇 달 앞서 실시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이른바 유력 후보자의 힘(coattail effect)이 미약하기 때문에 야권이 단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국가별 정당체제 파편성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국가를 넘어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시기의 모든 정당체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대체로 블록투표제나 비례대표제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에 비하여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체제의 파편성은 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에서도 소선거구제의 비중이 높을수록 파편성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는 동시선거(concurrent elections)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어 현직 대통령을 상대한다면 야권이 단결할 가능성이 높아서 파편성은 감소할 것이다.⁷⁾ 이와 같은 논리를 의원내각제에 적용한다면, 총선에서 현직 수상의 정당을 상대하는 경우 야당들이 단결할 유인이 높아져서 파편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7)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지 않는 비동시선거(non-concurrent elections)에서는 야권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파편성은 증가할 것이다.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설이 가능하다.

[가설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유효정당수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은 날 실시되는 동시 선거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의원내각제 총선에서 현직 수상을 상대하는 경우 유효정당수는 감소할 것이다.

2. 데이터와 모델

위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민주선거 이후 등장한 33개 정당체제들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표 3>에 나타난 “유효정당수”이다. 이는 1.5와 8.2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4.43이다.

“소선거구” 변수는 각 선거에서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미얀마의 1960년 총선과 필리핀의 1946년부터 1995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의원들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⁸⁾ 이에 비해 필리핀은 1998년 선거부터, 태국은 2001년과 2005년 선거에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모든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태국은 2001년과 2005년 총선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였다. “소선거구” 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0.48이다. 이 변수는 “유효정당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가설 1).

다음으로 “재선” 변수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서 동시선거

8)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직능 대표제(sectoral representation)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소수의 직능별 대표들을 지명하였으나, 이들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서 정당체제의 파편성과 무관하다.

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의원내각제의 총선에서 현직 수상의 정당이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는 경우는 “1”로, 나머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평균값은 0.48이다. 이 변수 역시 “유효정당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가설 2).

이러한 두 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유효정당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효정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양한 종족들이 혼재하는 국가의 경우, 각 종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ethnic party)들이 등장하여 유효정당수가 증가할 수 있다(Ordeshook and Shvetsova 1994; Choi 2010). 이러한 종족적 다양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피어론(Fearon 2003)의 종족 과편성(ethnic fractionalization) 자료를 이용하여 “종족다양성” 변수를 만들었다. 이 변수는 0.16에서 0.77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0.36이다.

끝으로, 경제 상황도 유효정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여 유효정당수는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 여당의 의석수가 감소하여 유효정당수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경제성장” 변수는 선거 전년도 1년간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증가율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총소득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함으로써 유효정당수는 감소할 것이다. “경제성장” 변수는 -16.92에서 8.22 사이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3.84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보통최소제곱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모델을 이용하여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과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정당체제 i 의 과편성(유효정당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text{유효정당수}_i = \alpha + \beta \cdot \text{소선거구제}_i + \gamma \cdot \text{재선}_i + X \cdot \text{통제변수들}_i + \varepsilon_i$$

ε_i 는 오차를 나타낸다.

3. 결과

<표 4>는 위에서 제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본 연구의 예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의석비율이 증가할수록 유효정당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소선거구” 변수의 계수 부호는 일관되게 음의 값을 나타내며 적어도 92% 신뢰수준($p < 0.08$)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한편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유효정당수는 감소한다. “재선” 변수의 계수 부호 역시 일관되게 음의 값을 나타내며 적어도 93% 수준에서 유의하다.

[모델 1]은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지 않고 선거제도의 효과만을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계수값을 통해 각 변수가 정당체제 과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소선거구” 변수의 계수값을 보면, 전체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전체 의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는 경우 유효정당수는 2.57만큼 감소한다. 유효정당수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가 2.01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이다. 한편, 동시선거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지 않거나 (재선이 허용되더라도 비동시선거이거나) 의원내각제에서 현직 수상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시선거에서 대통령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유효정당수는 1.58만큼 감소한다. 그

리고 측정값이 실제값의 편차를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R-제곱값은 0.53이다. 이는 33개 사례에서 나타나는 “유효정당수”의 편차를 “소선거구”와 “재선” 두 변수만으로 절반 넘게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 변수들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수	통계적 유의성	계수	통계적 유의성	계수	통계적 유의성	계수	통계적 유의성
소선거구	-2.57 (0.53)	0.00	-2.87 (0.83)	0.00	-2.23 (0.74)	0.01	-2.26 (1.24)	0.08
재선	-1.58 (0.50)	0.00	-1.59 (0.50)	0.00	-1.39 (0.70)	0.06	-1.40 (0.72)	0.07
종족다양성			-0.90 (1.95)	0.65			-0.08 (2.71)	0.98
경제성장					0.04 (0.07)	0.53	0.04 (0.07)	0.58
상수	6.43 (0.43)	0.00	6.90 (1.11)	0.00	6.15 (0.55)	0.00	6.19 (1.65)	0.00
R-제곱	0.53		0.53		0.30		0.30	
사례수	33		33		27		2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낸다. “경제성장” 변수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필리핀의 1946년부터 1961년까지 5개의 사례들과 미얀마의 1960년 사례가 누락되었다(모델 3, 4).

다음으로 [모델 2]에서는 두 개의 통제변수들 가운데 “종족다양성”을 포함하였다. 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선거제도 변수들에 관한 결과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R-제곱값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종족의 다양성이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는 “종족다양성” 대신 “경제성장”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변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선”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94% 신뢰수준 ($p = 0.06$)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성장” 변수를 포함할 때 R-제곱값이 0.30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변수들의 설명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끝으로 모든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것이 [모델 4]이다. 통제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고, “소선거구”와 “재선”은 각각 92%와 93%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다. 종족적 다양성과 경제상황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R-제곱값은 여전히 0.30인데, 이는 “경제성장”이 변수들의 설명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상황에 관한 변수를 제외한 [모델 1]이나 [모델 2]를 토대로 선거제도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통계적 추정치들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 <표 5>는 [모델 2]를 기반으로 “종족다양성”을 평균값에 고정한 상태에서, 선거제도에 따른 유효정당수의 예측값을 나타낸다. 먼저 국회의원 전원이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소선거구제”=1), 동시선거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는 경우(“재선”=1), 예상되는 유효정당수는 2.12이다. 이 경우 양당제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코스 독재 이전 필리핀의 양당제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지 않거나 비동시선거이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의 경우(“재선”=0) 유효정당수는 3.71로 다소 증가한다. 민주화 이후 비례대표제가 함께 실시되기 전까지(1995년까지) 필리핀의 정당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소선거구제로 당선되는 의원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유효정당수는 증가하는데, 소선거구제가 전혀 실시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소선거구제”=0) 대통령이나 수상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유효정당수는 4.99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경우 과편성이 상당히 높은 다당제가 출현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1976년, 1983년 등 태국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지 않고, 대통령 재선이 허용되지 않거나 비동시선거이거나 수상의 정당이 선거에 불참하는 경우 가장 과편성이 높은 다당제를 예상할 있는데(“유효정당수”=6.58), 인도네시아의 사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5> 선거제도에 따른 예상 유효정당수

	소선거구제		
	0%	50%	100%
대통령 재선 허용(대통령제): 수상 정당 참여(의원내각제)	4.99	3.55	2.12
대통령 재선 허용(대통령제): 수상 정당 참여(의원내각제)	6.58	5.15	3.71

통계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러한 결과들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유효정당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분석에서 제외된 변수들이 포함되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 분석 결과는 신뢰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별로 관측되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time-invariant) 어떠한 특수성이 그 나라 정당체제의 과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2]에 국가별 이항변수(더미)를 추가해 보았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세계 경제위기와 같은 갑작스러운 외부로부터의 충격도 과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태국에서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2009

년 유럽으로 이어진 세계 금융위기가 이러한 충격에 해당한다. 이 시기들에 실시된 선거들을 이항변수로 [모델 2]에 추가해 보았으나 결과는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V. 토론 및 결론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수대표제에 비하여 비례대표제 하에서,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지 않거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을 때 파편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종족의 다양성이나 경제상황과 같은 변수들은 동남아시아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선거제도의 효과에 관한 이러한 발견들은 대체로 기존의 비교정치제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들의 정치체제가 특수성보다 보편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나 정치상황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보편성 있는) 일반 이론 역시 생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종족의 다양성과 같은 사회 맥락적인(contextual) 변수들에 관한 본 연구의 발견들은 기존 비교정치학 연구의 결과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남미나 동유럽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경우 이러한 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Ordeshook and Shvetsova 1994; Roberts and Wibbels 1999). 이는 동남아시아 신생

민주국가들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왜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회 맥락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이 미미한지에 관하여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인과관계는 다시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정해 봄으로써 일반 이론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가 국가 수준의 정당체제 과편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역구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정욱(Choi 2010)은 인도네시아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지역구 수준에서는 선거제도(선거구의 크기)가 유효정당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역구 수준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선거제도가 국가 수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 역시 후속 연구 과제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개별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얀마의 1960년 민주 선거 이후 양당제가 출현한 것은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종족 정당들도 비교적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면 다당제가 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수 종족 문제가 심각했던 당시 버마에서(박장식 1993; 홍재우 2014), 거대 정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양당제 하에서는 소수 종족들의 이익이 중앙 정부를 통해 대변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후 분리운동이나 내전을 더욱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얀마의 신생민주주의는 2년도 못가서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다. 그러므로 미얀마와 같이 종족 간의 갈등이 심한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다당제를 출현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체제의 높은 파편성은 정부의 효율성을 낮추어 국가의 정치·경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회 내에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행정부 수반의 정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수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정에서는 소수 정당들의 이익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다수의 연정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성이 감소하여 국정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Tsebelis 2002). 소수파의 이익 대변과 정부의 효율성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정치인을 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부의 책임성도 낮아질 수 있다(Lijphart 1999).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는 파편성이 상당히 높은 정당체제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정부가 다양한 이익을 대변한다는 장점보다 정부의 책임성과 국정 수행 능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 소선거구제의 도입이나 대통령의 재선 허용,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동시 실시 등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체제의 파편성을 낮추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파편성, 선거제도

〈참고문헌〉

- 박장식. 1993.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지역연구』, 2(4): 57-76.

- 최정욱. 2005. "선거제도, 사회구조와 정당체제: 인도네시아 1995년
과 1999년 총선거." 『동남아시아연구』. 15(1): 105-30.
- 홍재우. 2014. "미얀마 종족갈등의 연대기: 좌절된 민주주의와 실패
한 종족공동체." 『국제지역연구』. 18(1): 53-84.
- Aldrich, John Herbert. 1995. *Why parties? The Origin and
Trans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meric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ibub, José Antonio, Jennifer Gandhi, and James Raymond
Vreeland. 2010.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Public Choice 143 (1-2):67-101.
- Choi, Jungug. 2012. *Votes, Party Systems, and Democracy in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oi, Jungug. 2010. "District Magnitude, Social Diversity, and
Indonesia's Parliamentary Party System from 1999 to 2009."
Asian Survey 50(4): 663-83.
- Choi, Jungug. 2001. "Phil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Elections, Term Limits, and Party Systems." *Asian Survey* 41
(3):488-501.
- Clark, William Roberts, Matt Golder, and Sona Nadenichek Golder.
2012. *Principles of Comparative Politics*. 2nd ed.
Washington, DC: CQ Press.
- Duverger, Maurice. 196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3rd ed. London: Methuen.
- Ellis, Andrew. 2000. "The Politics of Electoral Systems in Transition:
The 1999 Elections in Indonesia and Beyond." *Representation*
37(3): 241-8.
- Fearon, James D. 2003.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195-222.
- Fiorina, Morris. 1980. "The Declin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American Politics." *Daedalus* 109(3): 25-45.
- Hicken, Allen D. 2009. *Building Party Systems in Developing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cken, Allen D. 2008. "Developing Democracies in Southeast Asia: Theorizing the Role of Parties and Elections." In *Southeast Asia and Political Science: Theory, Region, and Qualitative Analysis*, ed. E. Kuhonta, D. Slater and T. Vu: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cken, Allen. 2006. "Party Fabrication: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Rise of Thai Rak Thai."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381-407.
- Kasuya, Yuko. 2009. *Presidential Bandwagon: Parties and Party Systems in the Philippines*. Pasig City: Anvil Publishing, Inc.
- Laakso, Markku, and Rein Taagepera. 1979. "Effective Number of Parties: A Measure with Application to West Europ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12:3-27.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t. 1990a. "The Power-Sharing Approach." In *Conflict and Peace-Making in Multiethnic Societies*, ed. J. V. Montville. Lexington: D.C. Heath and Company.
- Lijphart, Arend. 1990b.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1945-8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2):481-96.

- Phatharathananunth, S. 2008. "The Thai Rak Thai Party and Elections in North-Eastern Thailand."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 (1):106-23.
- Powell, G. Bingham.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attschneider, Elmer E. 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 Shin, Jae Hyeok. 2013. "Cabinet Duration in Presidential Democracie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8(2): 317-39.
- Teehankee, Julio. 2002. "Electoral Politics in the Philippines " In *Electoral Politics in Southeast and East Asia*, ed. G. Bruns, A. Croissant and M. John. Singapore: Friedrich Ebert Stiftung.
- Tomsa, Dirk. 2014. "Party System Fragmentation in Indonesia: The Subnational Dimensio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2): 249-78.
- Tsebelis, George. 2002. *Veto Players: How Political Institutions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14.10.17투고, 2015.1.7심사; 2015.1.26게재확정)

<국문초록>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비교 연구: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신 재 혁
(고려대학교)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의 파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시기 미얀마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당체제는 파편성에 있어서 국가와 시기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선거제도의 차이가 이러한 파편성의 차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주요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과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가 집합 수준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수대표제에 비하여 비례대표제 하에서, 그리고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파편성은 증가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와 대통령의 재선 가능 여부가 개별 수준의 정당체제 파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소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동시선거에서 대통령의 재선이 허용되거나 현직 수상의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 때 파편성은 감소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파편성, 선거제도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Party Systems in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Electoral Institutions and Party System Fragmentation

SHIN Jae Hyeok
(Korea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aim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the fragmentation of party systems in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 Myanmar,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The party system fragmentation differs across countries and periods, and I argue that electoral institutions affect the differences in fragmentation. I find that first, electoral formula and district magnitude affect the fragmentation of party systems at the aggregate level: the fragmentation tends to be higher under multi-member district system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compared to single-member district systems and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s. Second, district magnitude and banning of president's re-election affect the fragmentation of party systems at the individual level: the fragmentation tends to decrease as the proportion of legislators elected under single-member districts increases, and when the president is allowed to run for re-election in concurrent elections or when the prime minister's party participates in elections.

30 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Keywords: Southeast Asia; new democracy; party system;
fragmentation; electoral institutions